

朝鮮日報

A16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나

전국

‘韓·日 해저터널 논의’ 다시 수면 위로

한일(韓日) 간 오랜 검토와 논란의 대상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가 최근 부산에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한일해저터널 국제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일 교통국 주최로 ‘한일해저터널 워크숍’을 갖는 등 그동안 잠잠했던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공론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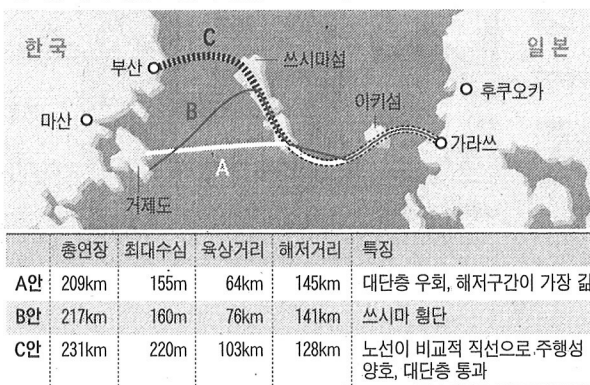
부산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월 말 허남식(許南植)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부산시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시 이영환(50)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은 “부산이 해저터널 논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향후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3개 노선 검토 중

노선은 현재 3개 안으로 압축돼 있다.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쓰시마 하도~경남 거제시(209km), 일본 가라쓰~쓰시마 상도~경남 거제시(217km), 일본 가라쓰~쓰시마~부산(231km) 등 노선이다. 이는 그동안 해저터널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왔던 일본 측 학계의 안(案)이다. 이 터널 길이는 영국~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 50.54km의 4배 이상이다. 이 터널이 만들어질 경우 해저터널 중 세계 최장(最長)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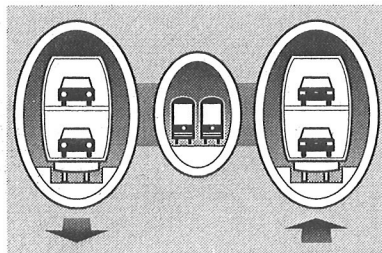
이들 3개 노선은 서로 장·단점

한·일 해저터널 노선 구상안



유로터널(도버해협) 개요

총연장	50.45km
착공	1988년
개통	1994년
공사비	14조원
터널구상	철도전용터널 3개(좌우 일방통행, 중앙 서비스 터널) 차량운반, 여객·화물 2종류 열차운행



부산시,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 공론 본격화 3개 노선 검토... 사업타당성 놓고 찬반 ‘팽팽’

을 갖고 있다. 쓰시마 하도(下島)를 거쳐 거제시로 가는 1안은 가장 짧지만 바다 밑으로 가는 거리가 가장 길다. 쓰시마 상도(上島)를 거쳐 거제시로 가는 2안은 쓰시마를 횡단하는 것 외에 1안과 비슷하다. 부산으로 가는 3안은 노선이 비교적 직선이지만 가장 길고 지진대를 지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과 경부축 등 물류 연결성 및 효율성이 좋고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해저(海底) 부분이 128km로 다른

안에 비해 20km 가까이 짧다.

공사비는 60조~100조원, 공사기간은 15~20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로터널(공사비 약 14조원, 공사기간 6년)에 비해 공사비는 5배, 공기는 3배 이상이다. 그러나 터널을 몇 개로 할지, 터널에 도로뿐 아니라 철로도 넣을지 등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터널 기능과 노선 등에 따라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터널은 굴이 3개(좌우 일

방통행 터널, 중앙 관리용 터널)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국명히 걸리는 찬반 논쟁

사업타당성이 주 논란거리다. 찬성론자들은 일본에서 대륙으로 수송되는 물동량의 통과료만 책가도 남는 장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해양대 박진희(41)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오사카 간 물류 비용이 현재는 컨테이너 1개(20피트 기준)당 665달러지만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472달러로 거의 30% 절감된다. 박 교수는 “해저터널 건설에 의한 성장잠재력 증가는 일본이 5% 이내지만 한국의 경우 9~150%일 정도로 한국 측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부산의 혜택이 클 것이라 예측도 있다. 부산대 정현영(50) 도시공학과 교수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동남권과 일본 규슈 지역이 한일해협 경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한국 측엔 실익이 없고 일본의 대륙진출을 돕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최열(48) 도시문재연구소장은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우리는 동남쪽의 일본만큼 공간이 확보되지만, 일본은 우리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공간이 넓어져 공간적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건설교통부 발주를 받아 수행한 ‘한일해저터널 필요성 연구’에서 “해저 화산지대를 지나고 있는 등 3개 노선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낸 것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朝鮮日報 (2007 年 5 月 11 日)

「日韓海底トンネル論議」再び水面上に

日韓間の長い検討と論難の対象であった「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に関する論議が最近釜山で再び活気を帯びている。

釜山市と釜山発展研究院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の必要性に対する本格的な論議のため、来る 14 日「日韓海底トンネル国際セミナー」を開く予定である。これに先立ち釜山市は、日韓海底トンネルに対する理解度を高めるために去る 3 日、交通局の主催で「日韓海底トンネルワークショップ」をもつなど、これまで静かであった日韓海底トンネルに対する公開議論を本格化する様子だ。

釜山市のこのような動きは、去る 2 月末、ホ・ナムシク（許南植）釜山市長が 10 大課題を発表する席で「当事者になり得る釜山市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問題に対して真剣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言及したことから始まった。釜山市のイ・ヨンファル（50）先進釜山開発本部長は「釜山が海底トンネル論議の内容と水準を知らなければ、今後必要な対策を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と話し、今後、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がより深く論議されうること示唆した。

◆ 3 つの路線検討中

路線は現在 3 つの案に圧縮されている。日本の九州佐賀県の唐津～対馬下島～慶尚南道巨済市（209km）、日本の唐津～対馬上島～慶尚南道巨済市（217km）、日本の唐津～対馬～釜山（231km）などの路線だ。これは今まで海底トンネルの研究を行ってきた日本側の学界の案である。このトンネルの長さはイギリス～フランスを結ぶユーロトンネル 50.54km の 4 倍以上だ。このトンネルが作られた場合、海底トンネルの中で世界最長となる。

これら 3 つの路線はお互い長所と短所を持っている。対馬下島を経て巨済市に行く 2 案は対馬を横断すること以外は 1 案と似ている。釜山に行く 3 案は路線が比較的直線であるが、最も長く地震帯を通るという問題点をかかえている。しかし、釜山港と京釜軸など物流の連結性および効率性がよく経済性が高いというのが長所である。また海底部分が 128km で他の案に比べ 20km 近く短い。

工事費は 60 兆～100 兆ウォン、工事期間は 15～20 年かかると推算されている。ユーロトンネル（工事費約 14 兆ウォン、工事期間 6 年）に比べ工事費は 5 倍、工期は 3 倍以上だ。しかし、トンネルを何本にするのか、トンネルに道路だけでなく鉄道も敷くのかなどに関しては決まっていない。専門家はトンネルの機能と路線などによって事業費と工事期間がさらに増える可能性が高いとみている。ユーロトンネルはトンネルが 3 つ（左右の一方通行トンネル、中央の管理用トンネル）で列車が運行している。

◆はっきりと分かれる賛否論争

事業妥当性が主な論点である。賛成論者たちは日本から大陸に輸送される物動量の通過料のみ確保しても儲かる商売だという主張を広げている。韓国海洋大パク・チンヒ(41)物流システム工学科教授の研究によると、釜山～大阪間の物流費用が現在はコンテナ1つ(20フィート基準)当り665ドルであるが、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れば472ドルでほぼ30%節減される。パク教授は「海底トンネル建設による成長潜在力の増加は日本が5%以内だが、韓国の場合、9～150%くらいと韓国側がはるかに高い」と主張した。

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る場合、釜山の恵沢が大きいという予測もある。釜山大チョン・ヒホンヨン(50)都市工学科教授は「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れば、釜山を中心とした我々東南圏と日本の九州地域が日韓海峡経済圏を形成する可能性が高い」と話した。

反面、反対論者たちは「韓国側には実益がなく、日本の大陸進出を助けるだけの結果をもたらす」という立場である。釜山大チェ・ヨル(48)都市問題研究所長は「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る場合、我々は東南側の日本だけ空間が確保されるが、日本は我々を経てユーラシア大陸まで空間が広がり空間的な平衡性がつり合わない」と主張した。

反対論者たちは2003年韓国交通研究院が建設交通部の発注を受け遂行した「日韓海底トンネルの必要性の研究」で「海底の火山地帯を通っている等3つの路線全てに事業性がない」と結論を出したことも根拠としてあげている。